



그 눈 속의 불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8년 8월 24일

요한 계시록은 예수아께서 **눈에 불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세 번 기록합니다.

이 능력, 곧 하나님의 “파이로스 (헬리어 “불”)”는 모세에게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던 (출 3) 것과 같은 영적인 불이며 홍해 앞의 기둥 속에 있던 (출 14) 불이요, 시내 산에서나 (출 19) 성막 제단 위 (레 9-10), 갈멜 산의 엘리야에게 (왕상 19) 임했던 동일한 불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 가운데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겔 1) 불이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가에 나타났던 불 (단 7)입니다.

이 하늘의 불은 또한 오순절 (사부울)에 초대 제자들에게 떨어졌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생일 케이크의 촛불처럼 그저 잠시 머리 위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눈 속을 들여다 봤다면, 요한이 본 예수아의 눈과 똑 같은 불을 소유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I. 열정

요한 계시록의 세 구절을 보면, 동일한 불이지만 각각의 목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맨 처음 예수아께서 사랑하는 제자요 친밀한 친구인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불은 열정적 사랑이었습니다.

계시록 1:12-14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 오는 그 음성을 알아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일곱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예수아께서는 요한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적 계시를 주려 오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듯 요한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아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이 같은 열정적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의 신부가 되는 모두에게 말이죠. 그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의 불입니다 (아 8:6). 히브리어로는 “살헤벨-야”라고 합니다. 질투와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순결하고 격렬한 사랑의 형태인 것입니다.

II. 순결

두 번째는 두아디라 회중을 향한 예슈아의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슈아께서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도덕적 타협 (특별히 성적 부도덕을 허락함)과 거짓 예언, 이세벨의 영을 감독하지 않음을 인해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계시록 2:18-20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숫쇠와 같은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와 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네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우리를 거룩한 열정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죄악에서 순결케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불에 손을 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능력 (행 9:40)은 다른 이들에게 설교했을 때 죽는 일도 일으켰습니다 (행 5:5, 10).

III. 형벌

세 번째 구절은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시는 예슈아께서 재림하십니다. 여기 주께서는 정결케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닌, 벌을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회개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대적들을 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11-15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이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계 19:20, 20:10, 20:15). 불못을 다스리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는 거기서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신 32:22). 하나님의 불 형벌에 대해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 안에는 거룩하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결하고 깨끗하며, 영원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눅 12:4, 시 19:9).

거울과 창

요한은 예수아 눈 속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의 가운데, 즉 눈동자에는 구멍이 있는데 마치 카메라의 구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불의 원천은 그분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있습니다. 그 분께는 영혼 깊이 타오르는 불이 있고 (눅 12:49),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타오르길 바라시는 열망이 있습니다.

또 그 눈에는 각막을 덮는 투명한 렌즈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아의 눈을 바라보면, 그분의 영 안에 있는 불이 밖으로 흘러 넘쳐 우리 눈에까지, 우리 영에까지 이르는 것을 봅니다. 이 에너지 이동은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을 통해 일어납니다 (엡 1:18).

어떤 이들은 컨퍼런스마다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불을 전수(impartation)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육의 눈을 감고, 성경에서 예수아의 불에 대해 말씀한 구절을 묵상하며 우리 눈을 들여다 보사 대면하시는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불꽃이 그분의 영에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은 머리 꼭대기로부터 턱의 중간, 곧 얼굴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나는 얼굴을 묵상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후 3:18). 예수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함으로 얻어지는 이 영적 변형은 제사장의 축복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 민 6:25”)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아론의 축복은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아 안에서 성취됩니다.

매일 예수아의 눈 속에 있는 불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에 그 열정과, 순결의 아름다운 불이 불길 바랍니다!